

# 지역 소식

북 아시아 지역

## 지역 계획 2016

2016년 1월

### 한국 모든 성도들이 단합하여 목표를 세우다

지난 1월 31일, 각 와드 및 지부에서는 2016 지역 계획에 대한 공과가 진행되었다.

이 연재 기사는 2016년 지역 계획의 비전과 목적을 주제로 한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회원들이 나아갈 방향,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드높인다’, ‘단순화한다’, ‘힘써 노력한다’, ‘강화한다’, ‘권유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2016 북 아시아 지역 계획을 제시했다. 영감에 따라 결정된 이 행동 단어(동사)들은 북 아시아 지역 모든 성도가 단합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월 31일, 전국 각 와드 및 지부에서는 초등학교, 청년, 상호부조회, 신권회 등 모든 신권 및 보조 조직 회원들이 정원회 및 각 보조 조직 모임 시간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마련한 ‘2016 지역 계획 특별 공과’를 듣기 위해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 영상 및 공과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 및 지부 회장단이 지역 계획을 훈련했다.

####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시청

이날 공과 시간에는 교회에서 제작한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 동영상은 지역 계획을 개인과 가정, 교회에서 적용해야 할 방법을 생각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 지역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 여러 회원의 간증, 지역 회장단의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가르히코 야마시타 장로, 최윤환 장로의 말씀, 지역 계획에 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영상에 포함되었다.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영상은 초등학교부터 대제사 그룹까지 지역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공유함

영상을 본 뒤, 감독단 및 지부 회장단은 공과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회원들이 지역 계획의 비전의 각 행동 단어(동사)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또한, 개인별로 한 해 목표를 세우도록 요청하고, 회원들이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했다.

회원들에게 A4용지 한 장짜리 ‘워크시트’가 배부되었는데, 이는 ‘지역 계획 2016’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워크시트의 구성에 따라, 회원들은 각자 올해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 단어를 몇 개 고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누가/누구에게(대상이 되는 사람), 무엇을(대상이 되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수단, 방법) 할지 등을 적어 넣었다. 회원들 몇몇이 워크시트에 적어 넣은



사진, 왼쪽: 2016년 지역 계획 공과에 참여 중인 광주 스테이크 동성 와드 회원들  
오른쪽: 저마다의 목표를 세운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

개인적인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들은 회원들은 또한 자신의 계획을 돌아보고 검토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개인적으로 세운 기회에 감사하고,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40분 동안의 공과를 마무리하며,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간증과 바람을 전했다. 회원들이 목표를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광주 스테이크 오석중 회장은, “이 지역 계획은 지역 회장단에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정하신 것입니다. 지역 계획을 올해 우리 삶의 리아호나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강중훈 감독은 “신앙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고자 끝까지 노력합시다. 또한, 결과뿐 아니라 실천 과정을 통해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전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공과 후에는 지역 계획을 토대로 제작된 달력과 책갈피가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정희 자매는 지역 계획을 통해 생각을 전환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거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쁨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운대 와드의 박덕진 형제는, “이번 공과를 통해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께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할 때, 큰일을 성취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라고 간증했다. ■

\*lds.or.kr에서 시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

**사랑한다:** 기도와 경전 읽기에 힘쓰며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광주 스테이크 정광태 형제

**힘써 노력한다:** 체력이 떨어지면 신앙 생활하는 데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탁구를 배워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향상하며 신앙 생활도 강건히 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스테이크 조이순 자매

**단순화한다:** 장로 정원희 회장으로서 부름을 수행할 때 주변을 정리하고 단순화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스테이크 이례훈 형제

**드높인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표준을 드높이며, 계명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부산 스테이크 방애라 자매

**힘써 노력한다:** 저활동이 된 남편이 다시 활동되도록 돕기 위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평소에도 온화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익명

**강화한다:** 저는 올해 고3이어서, 공부 때문에 자칫 신앙이 공격받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광주 스테이크 조재목 형제

**권유한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 사귀는 좋은 이웃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상호부조회 활동에 초대하고 토론을 권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산 스테이크 김옥희 자매

**힘써 노력한다:** 가족과 함께 매주 가정의 밤을 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강릉 지방부 김수인 자매

위 그림 및 글: 몇몇 회원들이 세운 2016년 계획의 일부 요약

## 자립 이야기

# 자립 서비스, 선택이 아닌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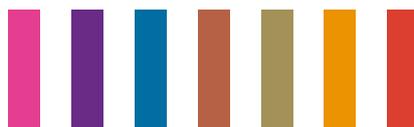
**김광운 형제**  
광주 스테이크 자립위원장

**우** 리나라는 빠르게 실버 세대로 변해 가고 있다. 수십 년 내에

우리 주변의 10명 중 서너 명은 노인 인구로 채워질 것이다. 광주 스테이크 내에서도 60대 이상의 활동 회원이 50명 이상인 와드가 생겨났다. 그 와드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매우 심각하다. 청년 취업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다.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실버 세대가 증가할수록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 취업이 저하될수록



봉사보다는 살기에 바쁘게 되어 신앙 생활의 충실도도 하락할 수 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모두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우리는 배워 왔다. 두 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명제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 제일회장단은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립 서비스 프로그램을 복지의 영역에서 독립시켜 전문화했다. 영적인 부분, 교육, 자영업, 사업, 취업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를 교육하고 실습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이다. 나는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회계, 리더십, 경영, 시장 분석, 캡스톤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는데, 교회 자립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MBA 프로그램이 요약되어 녹아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현대의 선지자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감받은 프로그램을 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자립의 개념을 교육하였고, 대학생과 기타 성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 자립 워크숍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자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지침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기반들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각 와드/지부에서 선지자의 영감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이것을 통해 훈련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성도들은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할 일들이 아주 많다.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도자들은 자립 서비스가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전문가들과 같이 이 자립 서비스를 공부해 보고 가르치면서 나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영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와드를 방문했을

때, 매주 목요일에 직업 교육을 한다는 광고와, 초대된 전문가에 대한 소개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와드에서는 자립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착 단계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 사업 분야에서 경고받은 자는 경고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듯이 우리는 스스로 자립하고 그다음에는 성도들이 자립하도록 도울 강한 책임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한다. ■

##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한 공지

**올** 해 초에 지역 회장단은 지역 내의 회원들과 지역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계획에 명시된 지역 목표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회원의 개종을 심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며,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한국의 교회 회원들은 영구 교육 기금(PEF)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나 합당하며 굳게 결심한 교회 회원들은 영적 및 현세적인 자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자원을 영구 교육 기금에서 받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교회 회원 및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돈을 대출받아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훈련 혹은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혜자는 대출받은 돈을 기금에 상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성전을 방문하기에 합당한 만 18세 이상의 교회 회원은 다음 자격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즉, 한국에 거주)
- 성찬식 모임 및 기타 안식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부름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 만일 청년 독신 성인이라면 종교 교육원 출석 요구 조건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 '자립으로 향하는 길' 워크숍을 이수했다.
- '더 나은 직업을 위한 교육'을 수료했다.('나의 기초' 워크숍 포함)
- 추천 목록에서 원하는 직업과 프로그램, 학교를 선택한다.
- 대출 멘토를 찾는다.
- 감독단 또는 지부 회장단과 접견하고 지지를 받는다.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회원은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나 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FSY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FSY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에서 마련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 준비 방법 1. 준비 모임 참석하기

올 전반기에는 지역마다 FSY를 준비하는 영적 모임이 열린다. 준비된 영적 모임을 통해 대회에 대해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보자.

## 준비 방법 2. 대회 알리기

친구에게 FSY에 대해 알리고 참가하도록 격려한다. FSY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간에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선교 사업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준비 방법 3. 홈페이지 살펴보기

FSY 홈페이지(fsy.lds.org)에 들어가서 대회에 관련된 동영상 및 자료를 확인한다. FSY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동영상과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회와 분위기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대회 기간 동안 입을 옷, 사용하게 될 책자 등을 미리 볼 수 있다.

## 준비 방법 4.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하기

FSY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smuckorea)에 접속하고 “좋아요”를

누른다. 페이지에 올라오는 홍보 자료를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면 주위 친구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 준비 방법 5.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상고하기

lds.org에 접속하여 상호 향상 모임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본다.

lds.org 메뉴에서, ‘가족 및 개인’ > ‘자료’ > ‘청소년’ > ‘청소년 메뉴’ > ‘2016년 청소년 주제’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

## 내 삶을 축복한 SMYC



### 김민수 형제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2016 FSY 운영 보조

**2010**년 7월, SMYC에서 매일 개인 경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연사들의 좋은 공과와

활동에 참여했지만, 연사들의 좋은 말씀이 마음에 잘 와 닿지는 않았다. 당시 고3에 수능을 앞둔 건 했지만, 사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전국 단위로 하는 청소년 모임이 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참석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특히, ‘결혼, 군대, 교육, 직업보다 선교 사업을 먼저 택하라’는 골자의 몇몇 공과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대회가 진행되어 갈수록 많은 친구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렇게 결심할 수 없었다. 선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가르침은 그저 마음속에 방황하듯 남아 있었다.

그해 겨울 수능을 본 뒤, 나는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신앙이 있어서 다니는지 의문이 생겼다. SMYC에서 배운 대로 매일 스스로 경전 공부를 해 왔던 나는 물문경에 나오는, ‘...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아서

10:5)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다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이 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을 때,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에 대해 답을 주시지 않았으며, 그 대신 ‘선교 사업을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

SMYC 당시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니파이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초등학교 시절의 내 모습이 기억났다. 나는 그날부터 바로 선교 사업을 준비했고,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아 2011년 6월부터 2년간,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교회의 참됨은 물론이고, 지상 생활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느꼈다. 그 시간은 내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SMYC는 내가 스스로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이를 통해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심하는 데 이르렀고, 선교 사업을 통해 영적으로 자립할 힘을 얻게 되었다.

SMYC는 영감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구주께서 주관하시는 훌륭한 대회라는 것을 간증한다. 2016년 FSY 역시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FSY를 통해 많은 청소년이 신앙의 기초를 쌓고 영적인 자립을 위한 힘을 얻길 기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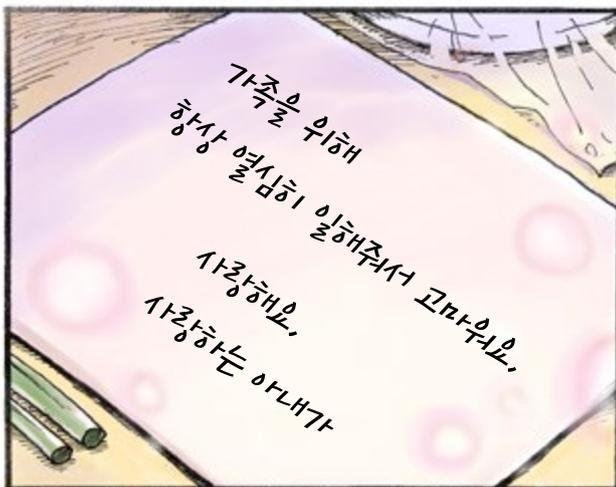
# 단풍잎 가족



- 에피소드 1 -

## “사랑한다”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은 <http://bcove.me/vfsi6tnq>에서 볼 수 있다.



# 비전과 영감에 기초하여 행동함

— 지역 비전의 동사들,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르히코 야마시타 장로

이 기사에서 우리는 지역 계획의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과 통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역 비전의 핵심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강력한 동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일회장단과 총관리 역원들이 여러 번 강조해 온 단어들입니다. 선지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기를 바라시는 일들은 이 동사들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 비전 = 우리 행동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

그저 목표를 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한다”, “드높인다”, “단순화한다”... 이런 말들에는 결의와 신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한 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드높이고, 단순화하는 모습을,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비전에 몰두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단위 조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의, 실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마음속으로 그려 보고, 명상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드높인다”에도 또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야고보서 2:18

일하는 능력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습 능력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매한 성품을 갖추도록 자신의 성품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점을 들며 감사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드높이는 일입니다. 무엇을 또는 누군가를 드높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성도가 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볼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계속 구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와 명상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일상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나눈다면, 저는 우리가 작은 개인적인 계시를 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는다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계시를) 끊임없이 구하고,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성도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계속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된다 함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며 또한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란 언제나 영이 함께하며, 언제나 영을 초대하고, 영을 구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과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모사이아서 3:19

같이 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는 속죄의 권능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영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에게서 멀어져 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는지 잠시 마음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이라고 해서 늘 진지한 나머지 미소조차 짓지 않고 뭔가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낙관적인) 마음가짐과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며, 긍정적인 태도와 말,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영은 실제로 춤추고 기뻐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미소 짓습니다. 끝없는 미소, 그러한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까?

## 속죄의 힘을 받음

어느 주일학교 시간에 속죄에 대한 공과를 듣고 있던 한 교회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속죄의 힘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교사는 그곳이 물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그 회원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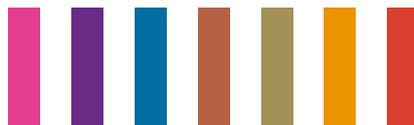
“죄책감을 느끼셨나요?” “네.”

“지금도 그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만일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죄책감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회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죄의 힘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장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야마시타 장로





“속죄라는 큰 축복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 그 축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속죄의 힘을 자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자신의 약함을 볼 기회가 많고 신앙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자주 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깊이 생각하고, 겸손해지며,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러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풍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 모임에서도 예수께 집중할 때 속죄의 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속죄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이 더욱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질 이상적인 시간이 아닙니까? 성찬은 우리가 개종의 길을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계속되는 행동의 사이클**

계속해서 교회에 가고, 계속해서 성전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계속해서 서로 지지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견뎌낸다는 의미입니다.<sup>1</sup>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실제로 행하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본 것을 돌아보고, 깊이 속고하고 그런 다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다음 행동이 마음 속에 그려질(비전) 것입니다. ...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여 계속해 나갈 때 개인적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낸 진정한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작함**

처음에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가져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풀이하며 성장한다면 우리 행동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회원 선교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점원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부담 없는 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람 자신에게 기쁜 일이 될 것이며, 그의 성장에 더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비록 침례로 이어진 적은 아직 없지만 많은 시도, 달리 말하자면, 실험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택시를 타면 항상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가게에 간다면, 우리는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전도 카드를 건네줍니다. 아무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전도 카드를 받아 줬고 심지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게는 시도해 보기에 절호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하더라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원 선교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소짓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권유한다면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상대방과 주님께 맡겨 두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이 아닙니까?

**특등 선교사의 본질**

옛날에 300여 명의 사람들을 개종시킨 전설적인 자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 선교사도 다른 선교사들처럼 힘들여 구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구도자들을 찾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 선교사가 발견한 방법은 토론이 끝난 뒤에 구도자에게 친구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자 구도자들은 잇따라 친구들을 데려와 소개했습니다. 구도자들의 친구가 오면, 그 자매 선교사는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이 환영받는다 느끼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노하우도 매뉴얼도 아닙니다. 나고야 선교부 회장으로 있을 때 선교사들에게 이 자매 선교사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핵심 또는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전설적인 자매 선교사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 결심을 다잡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믿고 행동했으며, 그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그녀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결의가 몹시 강하고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매 선교사와 우리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며, 저마다의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좋은 것들은 모두 철저히 흉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디에서든 시작을 하고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권고하신 일들을 전부 시도해 보십시오. 행하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다면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또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

1. 이 문장은 영어로 “endure to the end”이다. 이 문장은 불쾌한 무언가를 참는다는 의미가 아닌 (좋은)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거나 또는 견뎌 낸다는 의미이다.

# 포항, 함께 걸어온 40년의 이야기



정외곤 형제  
울산 지방부 포항 지부

언젠가 포항 지부 회원  
중에는 시각장애인

한 분이 계셨다. 물론경

점자 책이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함께  
물문경을 낭독하고 그 소리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선물하기도 했다.

산골짜기에 살던 그가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했는데, 그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 포항 지부 회원들은  
매주 그의 집으로 갔다. 추운 겨울이며  
더운 여름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지부 회원들은 기꺼이 한 시간이 넘는  
등산길에 올랐다. 지부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범은 나의 신앙에 닳아 되어 주었다.

나는 1977년 침례를 받고 신앙 생활  
대부분을 이곳 포항 지부에서 보내 왔으며,  
포항 지부 조직 4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 여러 산과 고비를

넘어야 했던 젊은 시절의 여정 속에서,  
교회 안에 머무르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경전과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 또한 회원들의 모범을 통해 올바른  
삶을 위한 지침을 배웠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포항 지부가  
발전해 오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지도자와  
선교사, 형제 자매들의 손길을 기억한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보여 준  
그리스도의 사랑은 앞으로의 세대를 통해  
이어져 나갈 것이다.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6명 / 장로 8명



김준범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부산 선교부



김진석 장로  
울산 지방부  
포항 지부  
서울 남 선교부



김진영 자매  
전주 스테이크  
정음 와드  
서울 선교부



김찬우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



박희영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부산 선교부



신소민 자매  
전주 스테이크  
군산 와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선교부



안광홍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부산 선교부



윤주영 장로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선교부



이원지 자매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부산 선교부



전한아라 자매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서울 선교부



조강비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부산 선교부



추지용 장로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서울 남 선교부



허경희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부산 선교부



김병희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한국 서울 성전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감독: 최익성 형제(전임: 배상혁 형제)

상계 와드 감독: 정정환 형제(전임: 신동식 형제)